

2012 NHERI 리포트 제165호 (2012. 2. 16)

작 성 : 김윤성 책임연구원(6399-5939)

yskim11@nonghyup.com

전찬익 농업정책연구실장(6399-5962)

cic5630@yahoo.co.kr

#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

## ■ 목 차 ■

---

### <요 약>

I. 머리말 .....	1
II. 쌀농가 경영현황 .....	2
III. 쌀농가 설문조사 개요 .....	5
IV. 쌀농가 설문조사 분석 결과 .....	8
V. 시사점 .....	16

---



## < 요약 >

### 1. 머리말

- 이 글은 최근 쌀농가의 경영현황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쌀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쌀농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2. 쌀농가 경영현황

- 추곡수매제를 폐지하고 쌀소득보전직불제를 도입한 2005년 이후의 쌀소득 추이를 보면 '05년에 10a당 545,776원에서 '10년에는 434,162원으로 떨어져 111,614원이 줄어듦
- 쌀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마이너스 4.5%이며, 소비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한 실질소득으로 보면 5년간 199,724원이 줄어 연평균 마이너스 7.3%를 보임
- 소득이 크게 하락한 것은 쌀값 하락에도 원인이 있지만 주로 생산비 상승에 기인함(최근 5년간 연평균 농업용품가격지수 상승률 6.2%)

- 한편, 쌀소득에 직불금을 더한 쌀 합산소득을 보면 '05년에 10a당 701,607원이던 것이 '10년에는 599,249원으로 낮아져 동기간 중 쌀소득 감소분(111,614원)보다는 작으나 거의 비슷한 수준인 102,358원이 줄어들
-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있어도 쌀농가의 경영환경은 지속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3. 쌀농가 설문조사 개요

- 지대별·규모별·경영주 연령별로 배분하여 57 농가를 유의 선정하여 설문지에 의한 면접청취조사 실시
  - 표본집단은 평야지대 농가 31호(54%), 중산간지대 농가 26호(46%), 호당 논 경영규모는 4.2ha로 전국평균 0.84ha의 5배이며, 평균연령은 61.3세로 경영주 전국평균인 62.3세와 비슷
  - 조사대상 기준기간은 2010년
  - 논에 타작물을 심는 「논 소득기반다양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16 농가로 전체의 28.1%

### 4. 쌀농가 설문조사 결과 분석

- 조사대상농가들은 지대·연령·규모에 관계없이 '낮은 판매가격'을 2010년 쌀농사의 가장 큰 어려움으로 지목

<2010년 쌀농사의 가장 큰 어려움>

전체	낮은 판매가격	생산비상승	기상재해	인력난	병충해	기타
(%)	57.9	12.3	12.3	5.3	3.5	8.8

- 두 번째 큰 애로사항으로 응답한 ‘쌀 생산비 증가’의 주요인으로는 지대·연령·규모에 관계없이 ‘비료 및 농약비’와 ‘광열비’ 상승을 지목함

<2010년산 쌀 생산비 증가의 주요인>

전체	비료 및 농약	광열비	농구비	노동비	토지임차료	기타
(%)	36.8	31.6	19.3	0	0	12.3

-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응답자 86%가 도움이 된다고 답함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한 평가>

전체	많이 도움된다	조금 도움된다	거의 도움이 없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전혀 도움 되지 않는다
(%)	47.4	38.6	10.5	1.8	1.8

- 쌀소득보전직불제 개선의견으로, 응답자의 40.4%가 목표가격의 상향조정을 요구하였으며 중·산간지대와 경영규모 1ha미만에서는 이 비율이 60%이상으로 높음

- 한편, 조사지역 중 산지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은 평야지대에서는 목표가격의 상향조정(22.6%)보다는 고정직불의 상향조정을 요구(41.9%)하는 응답이 더 많았음

<쌀소득보전직불제 개선의견>

	목표가격의 상향조정	고정직불의 상향조정	일정규모이하 소규모 가족농 지원강화	기타
전체 (%)	40.4	31.6	10.5	17.5
중·산간 지대 (%)	<b>61.5</b>	19.2	3.8	15.4
평야 지대 (%)	22.6	<b>41.9</b>	16.1	19.4
규모 1ha 미만 (%)	<b>62.5</b>	12.5	6.3	18.8

- 「논 소득기반다양화사업」에 참여하는 농가들은 작물생육 부진과 가격하락을 어려움으로 답함
- 논을 임차하는 응답자는 전체의 70.7%로, 높은 임차료와 빌릴 수 있는 농지부족에 따른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음
- 쌀농가 경영개선을 위한 자유의견 서술에서도 많은 농가들이 낮은 쌀가격과 생산비 상승의 어려움을 들었고, 직불제 개선, 면세유 공급제도 개선 등이 경영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응답

## 5. 시사점

- 쌀농가의 경영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여 쌀소득 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 변경시 생산비 상승분 또는 물가상승률 반영 필요
  - 또는 현행 변동직불금에서 소득보전비율 85%의 상향 조정, 고정직불금 상향조정 등도 검토 필요
- 쌀 과잉문제 대응과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작물의 재배적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지대별로 차별화된 영농지도 등이 필요
- 쌀농가의 임차면적비율이 높은 현실을 볼 때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농지 임대차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직불금 부당신청 및 수령을 막기 위한 정책집행 강화가 요구됨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직불금 수령조건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 특히 평야지역 임차농들은 고정직불과 변동직불을 실제로 수령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공통되게 응답
- 일본의 집락영농과 같은 마을단위 공동생산 등을 통해 쌀 생산비를 낮추어 나가는 노력 필요





## I. 머리말

- 전 농가의 69.2%가 쌀농사를 짓고 있고, 호당 농업소득에서의 비중이 39.1%, 전체 농업생산액 중 비중이 20.2%(모두 '09년 기준)로서 쌀농업의 위상은 여전히 높음
- 그러나 '05년에 도입된 쌀소득보전직불제에도 불구하고 10a당 쌀 합산소득(쌀소득에 쌀직불금을 합한 소득)은 큰 폭으로 하락 추세임
  - '05년~'10년 동안 '명목'으로는 매년 마이너스 3.1% 증가, 소비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한 '실질'로는 마이너스 6.0% 증가율을 기록
- 이 같은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제도 시행 이후 6년이 지나면서 미흡한 점이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필요
  - 쌀소득보전직불제는 쌀소득 지지에 일정 부분 기여하고 있으나 최근 비료, 농약, 유류비 등 쌀생산비 상승이 가속되면서 한계를 보이고 있음
- 또한 논에 콩 등 타작물을 심어 쌀 수급 조절과 식량자급률 제고를 위해 시범 운영되고 있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의 안착을 위해서는 현지 농업인들에 대한 애로사항 청취가 필요
- 이 글은 최근 쌀농가의 경영현황을 분석하고, 설문조사를 통한 쌀농업인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쌀농업의 경영개선을 위한 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음

## II. 쌀농가 경영현황

□ 2005년 이후의 쌀소득 추이를 보면 '05년에 10a당 545,776원에서 '10년에는 434,162원으로 5년 새 111,614원이 줄어듦

○ 연평균 증가율이 마이너스 4.5%를 보임

□ 이를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로 디플레이트한 실질소득으로 보면 '05년 633,886원이던 것이 '10년에는 434,162원으로 199,724원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남

○ 실질소득의 연평균 증가율은 마이너스 7.3%를 보임

<표 1> 10a당 쌀소득

(단위 : 원, %)

	'05	'06	'07	'08	'09	'10	연 평균 증가율
쌀소득	545,776	542,468	489,948	623,742	549,312	434,162	-4.5
물가지수 <sup>주)</sup>	86.1	88.1	90.3	94.5	97.1	100.0	-
실질소득	633,886	615,741	542,578	660,044	565,718	434,162	-7.3

주 :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양정자료」,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통계청

□ 이 기간 전국평균 수확기 산지 쌀가격은 '05년에 정곡 80kg당 140,028원이던 것이 '10년에는 138,231원으로 떨어짐

○ 쌀가격의 연평균 증가율은 -0.3%를 보임

<표 2> 수확기(10월~익년 1월) 산지 전국 평균 쌀 값

(단위 : 원/정곡 80kg)

	'05	'06	'07	'08	'09	'10	연평균 증가율
쌀값	140,028	147,715	150,810	162,307	142,360	138,231	-0.3%

자료 : 양정자료

□ 그러나 소득이 큰 폭으로 하락한 것은 쌀값 하락에도 원인이 있으나 주로 생산비 상승 때문임

○ <표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비료, 농약, 농기계 등 농업용품의 구입가격지수는 같은 기간 중 35.4%가 올랐고, 농촌임료금도 17.8%가 올라 쌀값 하락보다는 생산비 상승이 쌀농가 소득저하에 더욱 크게 기여

- 농업용품 구입가격의 연평균 상승률은 6.2%, 농촌임료금은 3.3%

○ 현행의 쌀소득보전직불금제도는 쌀 생산비 상승을 고려하고 있지 않음

<표 3> 농가구입가격지수 추이

	'05	'06	'07	'08	'09	'10	연평균 증가율
농업용품	100.0	100.7	104.8	128.5	138.4	135.4	6.2%
농촌임료금	100.0	100.9	103.5	111.7	116.4	117.8	3.3%

자료 : 통계청

□ <표 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쌀소득에 직불금을 더한 쌀 합산소득을 보면 '05년에 701,607원이던 것이 '10년에는 599,249원으로 낮아져 102,358원이 줄어듦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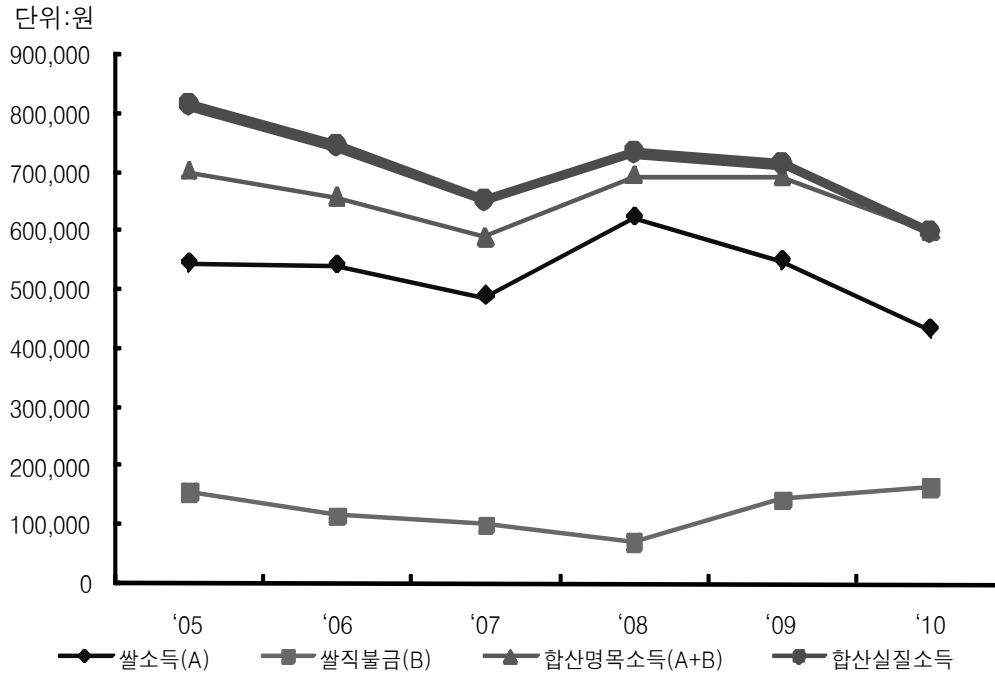
○ 연평균 증가율이 마이너스 3.1%를 보임

□ 소비자물가지수로 디플레이트한 실질 합산소득으로 보면 '05년에 814,875원에서 '10년에는 599,249원으로 215,626원이 줄어듦

○ 연평균 증가율이 마이너스 6.0%를 보임

□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있어도 직불금을 더한 쌀 합산소득이 '05년에 비해 '10년에 크게 줄어들었음을 알 수 있음

<표 4> 쌀직불금을 더한 10a당 쌀 합산소득 추이



단위 : 원	'05	'06	'07	'08	'09	'10	연평균 증가율
쌀소득(A)	545,776	542,468	489,948	623,742	549,312	434,162	-4.5%
쌀직불금(B)	155,831	115,976	99,933	70,000	143,371	165,087	-
합산명목소득 (A+B)	701,607	658,444	589,881	693,742	692,683	599,249	-3.1%
물가지수 <sup>주)</sup>	86.1	88.1	90.3	94.5	97.1	100.0	-
합산실질소득 <sup>주)</sup>	814,875	747,383	653,246	734,119	713,371	599,249	-6.0%

주 : 물가지수는 소비자물가지수(2010년=10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양정자료」, 「농림수산식품주요통계」; 통계청

### Ⅲ. 쌀농가 설문조사 개요

#### 1. 조사 목적 및 방법

##### 조사 목적

- 쌀농가의 경영상 애로사항 파악

##### 조사 대상과 방법

- 지대별, 규모별, 경영주 연령별로 배분하여 57호 농가를 유의 선정
- 조사대상 기간은 2010년 쌀농사 기간이며, 이를 위해 설문지에 의한 면접청취조사를 시행
  - 예비조사 및 본조사는 2011년 8월에 시행됨

##### 설문 조사 내용

- 쌀농사의 애로사항,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점, 논에 타작물재배 관련 애로사항, 논 임대차 관련 애로사항 등

##### 본 조사의 특징

- 본 설문조사는 표본수가 적어 사례조사의 성격이 짙음
  - 다만 참고로 각 표에 카이스퀘어 통계량과 유의수준을 표시해 놓았음

<표 5> 설문 조사 내용

설문조사내용	문항수
① 농업소득구성비율	1
② 논, 밭의 경영규모 및 논에 타작물 재배시 작목의 종류 등	2
③ 쌀농사의 애로사항	2
④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한 만족도 및 개선점	2
⑤ 논에 타작물 재배 여부와 관련 애로사항	2
⑥ 논 임대차 관련 애로 사항	3

## 2. 조사대상 농가의 연령 및 지대별 분포

### □ 조사대상 농가(경영주)의 연령

- 조사대상 농업경영주의 평균연령이 61.3세로서 경영주 전국 평균(62.3세)과 거의 비슷함

<표 6> 조사대상 경영주 연령분포

구분	조사대상 경영주		전국
	응답자수(명)	응답비율(%)	연령분포(%)
50세 미만	5	8.8	14.7
50-60세 미만	22	38.6	24.4
60-70세 미만	16	28.1	29.9
70세 이상	14	24.6	30.9
합계	57	100	
평균연령 (세)	61.3		62.3

주 : 전국 자료는 통계청의 농가인구통계와 통계청 보도자료(2011.8.30일자) 참조

### □ 조사대상자 지대별 분포

- 평야지대 31명(54%), 중·산간지대 26명(46%)으로 구성

### 3. 조사대상자의 농업경영 특성

#### □ 조사대상자의 경영규모

- 호당 논 경영규모가 4.2ha로 전국 평균 0.8ha의 5.3배
  - 전국 평균 호당 규모(2010년) : 1.5ha(이중 논 0.84ha, 밭 0.62ha)
  - 조사대상자의 논임차비율은 57.1%, 밭 임차비율은 33.3%

<표 7> 조사대상농가의 경영규모

(단위 : ha)

구 분	소유(A)	임차(B)	(A+B)	임차지비중 (%)
논	1.8	2.4	4.2	57.1
밭(과수원 포함)	0.4	0.2	0.6	33.3
계	2.2	2.6	4.8	-

#### □ 논에 타작물 재배현황

- 조사대상 농가 중 정부가 2011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농가는 16농가로 전체의 28.1%
  - 이들 참여농가는 논 경영면적 1.4ha의 14.3%인 0.2ha에 타작물을 재배하고 있음
  - 동 사업 참여율은 중장년층이 19.3%로 고령층의 8.8%보다 배 이상 높음

## IV. 쌀농가 설문조사 분석 결과

### 1. 쌀농업의 애로

#### 가. 낮은 판매가격과 생산비 상승

조사대상 농가들의 가장 큰 애로사항은 ‘낮은 판매가격’이 57.9%로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규모가 클수록 그 비중이 높음( <표 8> )

두 번째로 큰 애로사항은 ‘생산비 상승’(12.3%)과 ‘기상재해’(12.3%)였음

○ 생산비 상승에 대해서는 1~5ha미만 층에서 높은 응답률을 보임

○ 기상재해에 대해서는 영세·고령층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임

다음은 ‘기타’ 의견으로, 이는 주로 제초제 등 농약살포의 어려움임

<표 8> 쌀농가의 주된 애로사항

	전체 (%)	지대별 (%)						규모별		
		평야			중·산간			1ha 미만	1~5ha 미만	5ha 이상
		중장년	고령	평균	중장년	고령	평균			
①낮은 판매가격	57.9	80.0	45.5	67.7	38.5	53.8	46.2	50.0	52.4	70.0
②생산비 상승	12.3	5.0	18.2	9.7	23.1	7.7	15.4	0.0	23.8	10.0
③기상재해	12.3	5.0	27.3	12.9	7.7	15.4	11.5	25.0	4.8	5.0
④인력난	5.3	5.0	9.1	6.5	7.7	0.0	3.8	6.3	9.5	5.0
⑤병충해	3.5	5.0	0.0	3.2	0.0	7.7	3.8	0.0	4.8	5.0
⑥기타	8.8	0.0	0.0	0.0	23.1	15.4	19.2	18.8	4.8	5.0

$\chi^2=71.9, \alpha<0.05$



나. 비료·농약비와 광열비가 비용 상승의 주요인

□ 조사대상 농가가 느끼는 쌀 생산비 상승의 주된 요인은 비료·농약비와 광열비인 것으로 나타남

○ 조사대상 농가의 평균 논 경영규모는 4.2ha로 전국 평균 0.84ha보다 크게 높아 대형농기계 보유농가들이 많아 광열비의 비중이 높게 나온 것으로 보이며, 같은 이유로 농기계 감가상각비 등 농구비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남

- 그러나 이들 중농 이상 계층이 우리 쌀농업을 이끌어 가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광열비 부담이 큰 것은 문제

○ 그 다음은 ‘기타’로서 이는 중·산간지대 영세고령농가들의 임경료 지불에 따른 응답 결과인데 유류값 인상으로 계속 오르고 있는 임경료 현실을 반영

<표 9> 생산비 증가의 주된 요인

	전체 (%)	지대별(%)						규모별(%)		
		평야			중·산간			1 h a 미만	1~5ha 미만	5ha 이상
		증장년	고령	평균	증장년	고령	평균			
①비료 및 농약	36.8	40.0	45.5	41.9	38.5	23.1	30.8	12.5	57.1	35
②광열비	31.6	35.0	18.2	29.0	38.5	30.8	34.6	31.3	23.8	40
③농구비	19.3	25.0	36.4	29.0	7.7	7.7	7.7	25	9.5	25
④노동비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⑤토지 임차료	0.0	0.0	0.0	0.0	0.0	0.0	0.0	0.0	0.0	0.0
⑥기타	12.3	0.0	0.0	0.0	15.4	38.5	26.9	31.3	9.5	0.0

$\chi^2=42.4, \alpha<0.05$

## 2.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한 의견

### 가. 많은 도움이 되는 쌀소득보전직불제

- 조사대상농가의 86.0%가 쌀소득보전직불제가 소득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
- 그러나 5ha 이상 농가 중에서 일부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는데 이는 일부 임차 논에 대해 직불금을 수령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남

<표 10> 쌀소득보전직불제에 대한 평가

	전체 (%)	지대별 (%)		연령별 (%)		규모별 (%)		
		평야	중·산간	중장년	고령	1ha 미만	1~5ha 미만	5ha 이상
① 많이 도움된다	47.4	54.8	38.5	39.4	58.3	43.8	42.9	55.0
② 조금 도움된다	38.6	35.5	42.3	45.5	29.2	50.0	42.9	25.0
③ 거의 도움이 없다	10.5	6.5	15.4	9.1	12.5	6.3	14.3	10.0
④ 도움이 되지 않는다	1.8	0.0	3.8	3.0	0.0	0.0	0.0	5.0
⑤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1.8	3.2	0.0	3.0	0.0	0.0	0.0	5.0

$\chi^2=52.7, \alpha<0.05$

### 나. 목표가격 수준의 상향 조정 요망

- 조사대상 농가의 40.4%가 ‘목표가격의 상향조정’을 위해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다음으로는 31.6%의 ‘고정직불의 상향조정’임
  - 이를 지대별로 보면 중·산간지대에서는 ‘목표가격 상향 조정’(61.5%)을, 평야지대에서는 ‘고정직불 상향 조정’(41.9%)을 원하고 있는데 이는 중산간지대의 쌀 값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됨

- 1ha 미만 영세농은 ‘목표가격 상향 조정’(62.5%)을, 5ha 이상 대농은 ‘고정직불 상향 조정’(40.0%)을 원하고 있음
- 5ha 이상 대농 중에는 소규모 가족농에 대해 직불금을 늘려야 한다는 소규모 가족농 지원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경우도 있었음

<표 11> 쌀소득보전직불제 개선에 대한 의견

	전체 (%)	지대별(%)		연령별(%)		규모별 (%)		
		평야	중·산간	중장년	고령	1ha 미만	1~5ha 미만	5ha 이상
①목표가격의 상향조정	40.4	22.6	61.5	39.4	41.7	62.5	38.1	25.0
②고정직불의 상향조정	31.6	41.9	19.2	33.3	29.2	12.5	38.1	40.0
③일정규모이하 소규모 가족농 지원강화	10.5	16.1	3.8	9.1	12.5	6.3	9.5	15.0
④기타	17.5	19.4	15.4	18.2	16.7	18.8	14.3	20.0

$\chi^2=12.4, \alpha<0.05$

### 3. 논에 타작물 재배시 애로사항

- 논에 타작물 재배시 보조금이 지급되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 사업」<sup>1)</sup>에 참여하고 있는 16호 농가의 애로사항은 벼 대신 심은 밭작물로 인한 노동투입시간의 증가(31.3%)와 해당 작목의 가격 하락(31.3%)이었음
- 이어서 조사대상 농가의 25.0%가 배수가 잘 되지 않는 논 특성상 고추·콩 등의 생육이 부진함을 지적하였음

<표 12> 논에 타작물재배에 따른 어려움

	노동시간 증가	해당작목의 가격하락	작물생육부진	논에 쌀을 재배하지 않는 심리적 부담	기타
전체(%)	31.3	31.3	25.0	0.0	12.5

1) 사업대상 논에 벼 이외 다른 작물 재배시 ha당 300만원 지급.

#### 4. 논 임대차의 주된 이유와 관련 애로사항

- 논을 임대하고 있는 농가는 42가구로 조사대상 농가의 73.7%이며, 임대차의 가장 큰 이유는 ‘경영규모 확대를 통한 소득제고’(70.7%)가 압도적이었음
  - 다음으로는 기타(22.0%)였는데 이에선 친인척 소유지를 경작하고 있거나 소유 농기계를 활용하기 위해서라는 답변이 많았음
  - 논을 임차한 농가 42가구는 평야지대, 중장년층, 5ha이상 대농에 분포함

<표 13> 논 임대차의 주요 이유

구 분	경영규모확대 통한 소득제고	비옥한 경작지 확보	논소유지 없음	기타
전체(%)	70.7	4.9	2.4	22

$\chi^2=49.4, \alpha<0.05$

- 조사대상 농가들은 논 임대차시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높은 임대료’(33.3%)를 꼽았고 ‘빌릴 수 있는 농지의 부족’(26.2%)도 많은 농가가 지적
  - 한편 ‘기타’(31.0%)의 응답률이 높았는데 이에선 특별한 애로사항이 없다는 답변이 많았고, 경영비 부담으로 논 농업 경영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대답 등이 있었음
  - 또한 애로사항을 규모별로 보면 1ha 미만 소농층과 5ha 이상 대농층은 ‘높은 임대료’를, 1~5ha 층은 ‘빌릴 수 있는 농지 부족’을 들었음

<표 14> 논 임차 농가가 느끼는 어려움

	전체 (%)	지대별(%)		연령별(%)		규모별 (%)		
		평야	중·산간	중장년	고령	1ha 미만	1~5ha 미만	5ha 이상
①높은 임대료	33.3	36.0	29.4	34.6	31.3	33.3	20.0	44.4
②별릴 수 있는 농지부족	26.2	32.0	17.6	34.6	12.5	11.1	40.0	22.2
③임차지 지속적 경작 어려움	9.5	12.0	5.9	15.4	0.0	0.0	0.0	22.2
④임차절차의 어려움	0.0	0.0	0.0	0.0	0.0	0.0	0.0	0.0
⑤기타	31.0	20.0	47.1	15.4	56.3	55.6	40.0	11.1

$\chi^2=17.4, \alpha<0.05$

□ 조사대상 농가들은 대부분(89.5%)이 논 임대를 원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남

○ 임대를 원하는 농가들(10.5%, 6호 농가)은 평야지대 4명, 중산간지대 2명으로서 그 중 4명은 고령을 이유로 들었으며, 2명은 수익성 저위를 이유로 들었음

○ 임대를 하려할 때 예상되는 가장 큰 어려움으로는 ‘낮은 임대료’(3호 농가)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일본의 경우에는 우리와는 대조적으로 임대를 하고 싶어도 농지를 맡아 줄 농가를 찾기 힘들다는 연구 보고가 있음

- 일본의 경우 소규모로 경영을 계속하고 있는 농가의 대부분이 혼자 힘으로 영농을 유지하기 어려워 위탁 또는 마을단지 영농을 희망하고 있으나, 적극적으로 경영을 확대하고 싶다고 하는 농가나 마을단위 영농에서 리더 격인 존재가 없어 불가능하다고 응답(특히 중산간 지역에서 그러한 응답이 압도적이었음)(전찬익, 2009, 14쪽)

## 5.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의견

- 쌀농업 경영개선을 위한 의견을 자유 서술하는 문항에 대해 53명의 농가가 응답한 가운데 낮은 쌀 가격 및 생산비상승의 어려움을 호소한 응답자가 26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면세유 공급확대 9명, 직불제 개선 8명 등의 순이었음
- 평야지대인 당진, 김제, 철원에서는 농기계 이용·유지 및 농자재 비용과 관련된 생산비 상승 어려움과 직불금 부당수령 등 직불제 개선 의견이 다수 나타남
  - 특히 생산비 상승과 관련, ‘목표가격’ 상향조정을 희망하는 의견이 많았음
- 응답자들은 농산물 가격상승 언론보도에 높은 관심을 갖고 있었으며 여타 농산물가격은 상승함에 반해 쌀가격은 하락하고 있는 경영환경의 고충을 토로

<표 15> 경영개선을 위한 쌀농가 자유의견

개선의견	주요내용	응답자 (명)
① 낮은 쌀가격과 생산비 상승 어려움 호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물가는 크게 오른 반면 쌀값은 그대로임</li> <li>· 비료와 농약값, 임경료가 4-5년 전과 비교해 두 배 이상이 될 정도로 크게 상승하였음</li> <li>· 임차농의 경우 생산비 상승으로 다음 해 영농비확보도 어려운 실정임</li> <li>· 농기계구입 부담이 크므로 농기계 임대사업이 활성화되기를 바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또는 농기계 보조가 있기를 희망</li> </ul> </li> </ul>	26
② 면세유 공급 확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과거보다 농기계 엔진용량이 커져 현재 지급되는 면세유가 크게 부족함</li> <li>· 면세유 공급대상 농기계 품목이 확대되었으면 좋겠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가에서 사용빈도가 높은 소형트럭(포터) 등은 면세유 공급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어 제도개선이 있기를 희망함</li> </ul> </li> <li>· 면세유 가격 자체도 많이 올랐다고 호소</li> </ul>	9
③ 쌀 직불제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생산비 상승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쌀직불금제도 개선</li> <li>· 임경료와 일반상인에게 구입한 농약대 등을 제 때 갚을 수 있도록 고정직불 지급시기를 앞당겨주기를 희망</li> <li>· 직불금이 농지소유자가 아닌 실경작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제도개선이 시급</li> </ul>	8
④ 기상이변 어려움 호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2010년의 경우 이상기후로 쪽정이가 많은 등 수확이 줄고, 이 벼를 종자로 사용하여 올해('10년) 수확감소에도 영향을 미침</li> </ul>	3
⑤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저소득층에 쌀 제공 등 쌀 소비확대 대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함</li> <li>· 논의 타작물 재배와 관련하여 지대별로 적절한 영농지도가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중산간지대의 경우 논지의 배수문제로 고추와 콩 농사를 망친 사례가 있음</li> </ul> </li> <li>· 외부인의 농지매입이 심각함</li> <li>· 논농업으로는 학비 등 자녀양육에 필요한 소득을 마련할 수 없어 미래가 불투명</li> </ul>	7

## V. 시사점

- 쌀소득보전직불제의 목표가격 변경시 생산비 상승분 또는 물가 상승률 반영 필요
  - 5년마다 목표가격 변경시 물가상승률 등 반영 필요
    - 농업용품 구입가격지수는 '05년 100.0에서 '10년 135.4로 5년 사이에 35.4% 상승
    - 소비자물가는 '05년 86.1에서 '10년에는 100.0으로 올라 최근 5년 사이 16.1% 상승하였음
  - 또는 현행의 소득보전비율 85%(목표가격과 시장가격과의 차이의 85%를 고정과 변동직불금으로 보전)를 상향 조정하는 것이 필요
    - 이 외에 고정직불금 상향조정 검토도 필요
- 쌀 과잉문제 대응과 타작물 식량자급률 제고를 목적으로 하는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서는 작물의 재배적지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 등 뒷받침이 필요
  - 타작물재배면적이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중·산간지대는 작물선택과 재배조건에 대한 세밀한 분석이 더욱 요구됨



- 쌀농가의 임차면적비율이 높은 현실을 볼 때 경영안정을 위해서는 농지 임대차를 안정시킬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며, 직불금 부당신청 및 수령을 막기 위한 정책집행 강화가 요구됨
  - 「쌀소득 등의 보전에 관한 법률」의 직불금 수령조건 강화에도 불구하고 이번 조사에서 특히 평야지역 임차농들은 고정직불과 변동직불을 실제로 수령하지 못하는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공통되게 답함
  
- 일본의 집락영농과 같은 마을단위 공동생산 등을 통해 쌀 생산비를 낮추어 나가는 노력 필요
  - 집락영농(集落營農)이란 집락 등 지연(地緣)적으로 통합되어 있는 일정지역 내의 농가가 농업생산을 공동으로 행하는 영농활동을 말함
    - 집락영농은 (1)전작(轉作)논의 단지화, (2)공동구입한 기계의 공동이용, (3)담당자가 중심이 되어 생산으로부터 판매까지의 공동화 등, 지역 실정에 맞게 그 형태나 운용은 다양함
  
- 본 조사는 전국 평균보다 쌀농사의 규모와 비중이 큰 농가의 경영실태 및 의견을 반영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으며, 최근의 쌀 생산비 상승 원인에 대한 현장의견을 수집했다는 데 의의가 있음
  - 향후 조사에서는 보다 다양한 농가를 대상으로 표본집단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매년 유사한 조사를 시행한다면 쌀농가 경영환경의 변화를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참 고 문 헌>

사공용, 「UR, DDA, FTA와 한국농업」, 서강대 출판부, 2008  
전찬익, 「농지유동화·집적이 진행되는 일본농업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  
심역할 -」, NHERI리포트 144호, 농협경제연구소, 2011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 주요통계」, 2011  
\_\_\_\_\_, 「양정자료」, 2011  
통계청, 「농산물 생산비 통계」, 2011.4

## 2007 NHERI 리포트

- 농식품 소비지 유통환경의 변화와 농협판매 사업의 과제(이론적 접근) / 제1호 / 최용주
- 프랑스 농협의 연합사업시스템 / 제2호 / 최재학
- 구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 제3호 / 최영조
- 판매협동조합의 이론모형 / 제4호 / 최영조
- 현대 한국농업의 조직론적 변화와 제도론적 분석 / 제5호 / 최용주
- 서브프라임 리스크 분석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 제6호 / 송두한
- 광우병과 식생활의 안전성 / 제7호 / 이차수
- 거래비용이론과 협동조합 / 제8호 / 최영조
- 조합원의 다양성과 협동조합의 의사결정 / 제9호 / 우재영
- 선진 컨설팅 기업의 운영과 방법론 연구 / 제10호 / 조재근

## 2008 NHERI 리포트

- 서브프라임 버블 진단과 향후 파급효과 전망 / 제11호 / 송두한
- 국내 은행권 금융그룹화 전략과 시사점 / 제12호 / 구본웅
- 수입물가 급등에 따른 산업품목별 영향 평가 - 원유와 수입 곡물을 중심으로 / 제13호 / 김현식
- 독일 협동조합은행의 통합 리스크관리 / 제14호 / 윤기태
- 농·축산물 생산변화에 따른 농촌물가통계 지수개편 / 제15호 / 김태성·김현식·안상돈
- 국제회계기준(IFRS)의 협동조합 자본 문제와 대응 방향 / 제16호 / 최재학
- 가계 주택수요 분석을 통한 향후 주택시장 전망 / 제17호 / 송두한 / 김현식
- 농산물 상품시장의 투자 붐과 전망 / 제18호 / 윤기태·현성현
-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최근 경영전략 / 제19호 / 윤기태
- 개방체제하 한우산업 발전방향 / 제20호 / 김태성·김현식·송두한
- 일본의 쌀 정책개혁 동향 / 제21호 / 신재근
- 협동조합의 사회경제학 : 협동조합기업 고유의 조정원리는 어디에 있는가? / 제22호 / 최용주
- 협동조합 사업의 비시장가치 분석방법론 / 제23호 / 이상호
- 신규금융유통채널과 농협의 시사점 / 제24호 / 김유섭
- 개정 농안법과 중앙회 공판장 마케팅 전략 / 제25호 / 한기인
- 협동조합 판매사업의 이론모형 / 제26호 / 임영선
- 국내산 및 수입산 과일류의 소비행태 조사 / 이삼섭·안상돈

- 농업협동조합의 최신 이론 : 신제도주의 경제학적 접근 / 제28호 / 권경섭
- 해외 협동조합은행의 조직과 지배구조 / 제29호 / 이현성·윤기태
- 일본의 「논유지직접지불」에 의한 비주식용 쌀 생산 - 식량자급률 향상과 쌀 생산·축산구조의 재검토 / 제30호 / 손황제
- 국내 주택산업 수급동향과 향후 전망 / 제31호 / 송두한·김현식
- 일본의 농가구조 변화와 농협조직 / 제32호 / 신재근
- 농민은 왜 협동조합에 참여하는가? - 거래비용 관점에서의 접근 / 제33호 / 이경원
- 유럽 낙농협동조합의 경영방식과 구조변화 / 제34호 / 우재영
- 국내 외국인 증권투자 동향과 파급효과 분석 / 제35호 / 송두한·김현식
- 농협 가공식품사업 활성화 전략 - 회원조합 가공사업 및 NH식품을 중심으로 / 제36호 / 안상돈·안진용·김태성
- 협동조합 은행의 자본조달 혁신 사례와 시사점 / 제37호 / 최재학

## 2009 NHERI 리포트

- 유럽 협동조합 은행의 현황과 지배구조 문제 / 제38호 / 김한중
- 유럽 낙농정책 변화와 협동조합 모형 / 제39호 / 이상호
- 2009년 주요 신년사 / 제40호 / 송재일
- 미국산 쇠고기 파동 및 조류인플루엔자(AI) 확산 이후 소비자의 축산물 소비행태 조사 / 제41호 / 이삼섭·안상돈
- 2009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제42호 / 손황제
- 일본의 2009년 농업정세 전망 / 제43호 / 손황제
- 협동조합(은행)의 사회경제발전에 대한 기여 - 네덜란드 라보뱅크 사례 / 제44호 / 송재일
- 판매협동조합의 운영과 사업 모델 - 서구 9개 낙농협동조합의 사례 분석 / 제45호 / 송재일
-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I) / 제46호 / 우재영·박희철·박언희
- MMA 수입쌀 유통현황과 개선방안 / 제47호 / 신재근
- 일본의 농상공 연대와 농협의 역할 / 제48호 / 이원진
- 유럽연합(EU) 농업보험제도 현황과 시사점 / 제49호 / 이우식
- 국제 곡물상품시장 전망과 농협의 대응 방향 / 제50호 / 송두한
- 농촌 다문화가정 현황과 지원방안 / 제51호 / 신재근
- 서구 농협의 10대 성공사례(II) / 제52호 / 우재영·박희철·박언희
- 농지담보거래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제53호 / 송재일
- 은행의 재무 현황 분석 및 농협의 시사점 / 제54호 / 윤건용
- 식량의 안정적인 수급관리를 위한 「新식량안보지수」 개발·활용 방안 / 제55호 / 이원진
- 유럽 협동조합은행의 CSR 사례와 성과 / 제56호 / 김유섭

- 일본 대규모 벼농사 농가의 실태와 과제 / 제57호 / 신재근
- 주요 금융용어를 통해 살펴본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개과정 / 제58호 / 임일섭 · 정동욱
- 대형 급식업체의 전처리 농산물 이용 현황과 농협 전처리 사업의 대응 방향 / 제59호 / 안진용
- 국내 은행 부문의 시장리스크 진단 및 시사점 / 제61호 / 송두한 · 김현식
- 은행의 잠재적 재무리스크 평가 / 제62호 / 윤건용
- 일본 농정의 개선 방향 / 제63호 / 이원진
- 소매 프랜차이즈 시장의 특성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편의점 시장을 중심으로 / 제64호 / 채성훈
- 일본농협의 공제사업 / 제65호 / 김유섭
- 하천구역 농지와 농업보상 / 제66호 / 송재일
- 한우 품종특질과 브랜드 전략 / 제67호 / 김태성
- 대만 쌀 생산조정 경과의 실태 / 제68호 / 이원진
- 통화옵션상품 ‘키코사태’의 현황 분석 및 시사점 / 제69호 / 백승오
- 대형 할인점의 신선편이 농산물 취급 동향과 농협의 대응 방향 / 제70호 / 안진용
- 쌀 수급동향과 대책 / 제71호 / 신재근
- 추석의 양력일자와 농업생산의 관계에 관한 연구 / 제72호 / 김대현
- 우수조합 사례 연구-10 - 순천농협 : 광역합병을 통해 지역 거점농협으로 도약 / 제73호 / 임영선
- 한·EU FTA의 주요 내용과 영향 분석 / 제75호 / 손황제
- 우수조합 사례 연구-11 - 농협경주시연합사업 :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조직화 / 제76호 / 박희철
- 상호금융특별회계의 법체계 / 제77호 / 송재일
- 최근 점포전략의 변화와 해외은행 사례 / 제78호 / 김유섭
- 축산여건과 소비자 트렌드 변화에 따른 국내 친환경축산 선결과제 / 제79호 / 김태성
- 우수조합 사례 연구-12 - 황성 서원농협 : 경제사업 중심의 조합 경영 / 제80호 / 임영선
- 환경변화에 대응한 농협의 금고사업 경쟁력 강화 추진 방향 / 제81호 / 최재학 · 이판용
- 핀란드 OP-Pohjola(포홀라)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성장전략 / 제82호 / 최재학
- 영국 농협의 성공사례 / 제83호 / 박희철 · 박언희
- 경제위기와 협동조합 사업모형의 강점 / 제84호 / 박언희

## 2010 NHERI 리포트

- 식량안보 평가를 위한 「식량안정지수」 개발·활용 방안 / 제85호 / 이원진
- 2010년부터 달라지는 제도 / 제86호 / 허 훈·채성훈
- 일본의 농업생산 변화 추이와 일본 농협의 과제 / 제87호 / 손황제
- 우수조합 사례 연구-13 - 안성 고삼농협 “농촌형 사회적 기업 운영” / 제88호 / 이인우
- 조합경영 사례 연구-14 - 아산 송악농협 : 브랜드 떡사업으로 지역쌀 판로확보 / 제89호 / 박희철
- 조합경영 사례 연구-15 - 나주 남평농협 : 친환경 경제사업의 선진 모델 / 제90호 / 최용주·신기엽
- 국내 은행의 IB사업 현황 및 시사점 / 제91호 / 송두한
- 오바마 금융규제안과 농협의 대응전략 / 제92호 / 윤건용·박태영
-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상): 구주·미주편 / 제93호 / 채성훈·조영수
- 변모하는 세계 곡물시장(하): 아주·대양주 및 종합편 / 제94호 / 채성훈·김유섭·조영수
- 해외 협동조합 금융그룹의 보험사업(프랑스, 독일 사례) / 제95호 / 최재학
- 농정과 농협의 역할 / 제97호 / 황명철
- 우수조합 사례 연구-16 - 정읍농협 “도농복합도시형 지역종합센터 모델” / 제98호 / 이인우
- 골드만삭스 사기혐의 피소 현황 및 분석 / 제99호 / 윤건용·박태영
- 조합경영 사례 연구-17 - 도드람양돈협동조합 : 농민중심의 가치사슬 운영모델 / 제100호 / 박희철
- 몽골의 경제현황과 향후 협력방향 - 농업부문과 금융부문을 중심으로 / 제101호 / 이판용
- 유럽발 재정위기 확산가능성과 우리나라 대응방향 / 제102호 / 윤건용
- TV홈쇼핑 시장동향과 농협에 대한 시사점 / 제103호 / 채성훈
- G20 회의 관련 금융이슈 분석 및 시사점 / 제104호 / 박태영
- 조합경영 사례연구-18 - 고흥 두원농협 : 한국 유자의 세계화를 선도 / 제105호 / 송재일
- PF 대출 부실의 금융시스템 전이 가능성에 대한 진단 / 제106호 / 윤건용
- 조합경영 사례연구-19 - 충북원예농협 : 부가가치형 판매농협 모델 / 제107호 / 최희원
- 일본의 농지이용 활성화와 농협의 역할 / 제108호 / 황명철
- 협동조합은행과 고객중심주의 전략 / 제109호 / 김유섭
- 소매금융의 변화와 사업전략 / 제110호 / 박태영
- 우수조합 사례 연구-20 - 서울 관악농협 “도시 농촌 농협네트워크 농산물 판매 모델” / 제111호 / 이인우
- 조합경영 사례연구-21 - 울산 농소농협 : 도농복합농협의 지역종합센터 모델 / 제112호 / 송재일
-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와 농협의 역할 / 제113호 / 전찬익

- 우수조합 사례 연구-22 - 신안천일염 연합사업단 “농협의 식품시장 참여 모델” / 제114호 / 이인우
- 바젤 III(안) 도입이 국내 금융기관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 제115호 / 윤건용·박태영
- 조합경영 사례 연구-23 - 광주축산농협 : 고객만족(CS)으로 조직문화 혁신 성공 / 제116호 / 박희철
- 조합경영 사례연구-24 - 부산 대저농협 : 토마토 최고값 실현으로 조합원 소득창출 / 제117호 / 최희원
- 조합경영 사례연구-25 - 파주 금촌농협 : “조합원 최우선” 경영철학을 실천 / 제118호 / 송재일
- 고행화·인구감소와 일본 지역금융기관의 가계 중심화 전략 / 제119호 / 김유섭
- 우수조합 경영사례의 시사점 / 제120호 / 신기업
- 1995~2009 「식량안정지수」와 시사점 / 제121호 / 조영수
-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I) / 제122호 / 박태영
- 서울 G20 정상회의 핵심 의제 분석 (II) / 제123호 / 박태영
- 일본의 쌀 정책 대전환과 시사점 / 제124호 / 박재홍·황명철·전찬익
- 프랑스 CA그룹의 체제 변화와 시사점 / 제125호 / 최재학
- 미국 양적완화정책이 국내경제에 미치는 영향 / 제126호 / 윤건용·박태영
- 중국 농업·농촌 개혁의 성과와 과제 / 제127호 / 전찬익
-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및 농협의 시사점 / 제128호 / 윤건용
- 미국 선물시장과 농가의 리스크 관리 - 곡물가격 급등기의 가격리스크 관리 문제 / 제129호 / 전찬익
- EU의 소농 현황 및 지원 정책 / 제130호 / 조영수
- 미국의 소농 현황과 시사점 / 제131호 / 박재홍
- 일본의 농업·농촌 활성화 국민운동 / 제132호 / 황명철

## 2011 NHERI 리포트

- 2011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 제133호(2011.1.19) / 조영수·채성훈·허 훈
- 투자자 관점에서 본 구조화채권 / 제134호(2011.1.24) / 윤건용·최성중
- 중국 농촌 금융기관의 개혁과 과제 / 제135호(2011.1.28) / 김유섭
- 미국·유럽의 직불제와 일본의 호별소득보상제도 비교 / 제136호(2011.3.14) / 전찬익
- 국제원유가격 급등과 시사점 / 제137호(2011.3.21) / 조영수
- 일본의 쌀 수출동향과 전망 / 제138호(2011.3.31) / 김응규
- 국제 곡물가격 급등이 축산농가에 미치는 영향과 정책과제 / 제139호(2011.3.31) / 박재홍

- 농업·농촌 올바르게 이해하기 / 제140호(2011.5.13) / 김응규·박재홍·전찬익·조영수
- 북·중 경험의 동향과 시사점 / 제141호(2011.5.16) / 최희원·이판용
- 해외곡물 자원 확보 동향과 시사점 / 제142호(2011.6.29) / 이삼섭·안상돈·정준호
- 글로벌 금융위기이후 우리나라 외환시스템의 중장기 발전방안 / 제143호(2011.6.30) / 윤건용
- 농지 유통화·집적이 진행되는 일본 농업 - 마을단위등 집락영농이 핵심 역할 / 제144호(2011.7.8) / 전찬익
- 판매농협의 가격 효율성과 시사점 - RPC 사례를 중심으로 / 제145호(2011.8.16) / 유춘권·전찬익
- 국내 축산브랜드 프랜차이즈 참고사례와 시사점 / 제146호(2011.8.17) / 김태성
- 우리나라 외환시장의 개편방향 / 제147호(2011.8.22) / 윤건용
- 대중국 농축산물 교역동향과 특징 / 제148호(2011.8.25) / 박재홍
- 소비자물가와 농산물가격의 이해 / 제149호(2011.9.26) / 유춘권
- 농협 식자재 매장 이용 행태 조사 및 시사점 / 제150호(2011.9.30) / 이삼섭·안상돈·정준호
- 일본에 있어 TPP와 농산물 무역 정책 / 제151호(2011.10.26) / 전찬익
- 보험산업 시장변화에 따른 경쟁우위 원천에 관한 연구 / 제152호(2011.10.28) / 송두한
- 국제통화시스템의 변화 가능성과 시사점 / 제153호(2011.10.31) / 양선주
- 금융기관의 외화건전성 규제 현황 및 개선방향 / 제154호(2011.11.1) / 윤건용
- 최근의 경제 흐름과 국내 금융부문 리스크환경 분석 / 제155호(2011.11.9) / 최성중
-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현황과 당면과제 / 제156호(2011.11.24) / 김태성
- 농협 개인금융고객 분석 및 마케팅 전략 / 제157호(2011.11.24) / 김유섭
- 우리나라 물가구조의 특징과 시사점 / 제158호(2011.11.28) / 임일섭
- 2011 국내 김치 산업 동향 및 소비자 김장 계획 조사 / 제159호(2011.11.28) / 안상돈·이삼섭·정준호
- 하나로마트 점포규모화에 관한 연구 / 제160호(2011.11.29) / 서충원
- 농협공판장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 제161호(2011.11.30) / 서충원
- 기후변화와 농업의 대응 / 제162호(2011.12.19) / 김윤성

## 2012 NHERI 리포트

- 2012년부터 새로 시행되는 제도 / 제163호(2012.1.12) / 김윤성·채성훈·김유섭
- 농업과 관련된 곤충산업 현황과 시사점 / 제164호(2012.2.10) / 김태성
- 쌀농가 경영실태와 시사점 / 제165호(2012.2.16) / 김윤성